

지역 소식통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카네이션 전달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경준)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무자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60명에게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섬김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심리적 고독함에 빠지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협의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등이 팀을 이뤄 어르신들 한분 한분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또한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카네이션 브로치와 카네이션 자수가 새겨진 면마스크, 든든하게 드실 모듬양갱세트 등 특별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섬김을 실천하고자 최소인원이 마스크와 리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방문하고 어르신에게 예방수칙을 알리는 등 바이러스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은 평소보다 소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에 주민 모두가 지역 어르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대자인병원과 업무협약

사)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와 대자인 병원(병원장 이병관)은 지난 7일 대자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상호간 효율적 지원 체계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항상 열심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검진, 의료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자인 병원은 완주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내 가족과 같은 정성으로 의료 복지증진에 기여해 더욱 발전해 가는 병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진 90여명과 전체 직원 1천여명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생계비 지원 수혜대상 확대

완주군, 코로나19 피해 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확대 기준·소득요건 완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50만원 지원

완주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의 생계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완주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당초 1일 2만5000원씩 일할 계산하였으나, 이번 변경으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

액 지원, 최대 100만원(2개월)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해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2개월)까지 지원한다.

또한 당초 일할 계산해서 지원하던 것을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로 지원 확대했다.

변경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완주군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위한 단기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완주군 거주 만 65세 미만의 실직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0명이 모집돼 행정보조, 청소환경정비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기준요건 완화로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정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랑의 헌혈을 12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청 민원종합실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실시한다.

“사랑의 헌혈에 참여하세요”

김제시청 민원종합실 주차장에서 12일 오전 10시 ~ 4시까지 실시

김제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랑의 헌혈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시청 민원종합실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혈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여 45kg, 남 50kg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헌혈에 참여한 경우 자원봉사 4시간이 인정되며 기본혈액검사 7가지 항목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헌혈은 2개월의 주기가 필요하며 당일 진통제나 감기약을 복용한 경우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헌혈 수요량은 증가한 반면 헌혈 참여자 감소로 혈액 보유량 유지가 매우 어려워 혈액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상

황에 있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 1월 30일 동절기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였으며 혈액 수급 위기 극복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다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헌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대기하는 동안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등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현재 헌혈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헌혈 실천 운동에 김제시민 및 공무원, 각 기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방문의 해, 완주와 ‘썸’ 한번 타 보실래요?

SNS 통한 온라인 관광마케팅

완주 여행 사연 참여 이벤트 진행

2021 완주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이 온라인 관광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완주군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예상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완주군 여행지와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이벤트를 지난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

혔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주군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임을 부각시키고 여행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완주와 썸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여행의 설렘과 기대감을 이끌어 내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이벤트이다.

완주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선정해 당첨자에게 완주 여행티켓을 증정한다.

참여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하며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온라인 관광마케팅을 통해 완주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여행객에게 안전하고, 숨은 비경과 즐길 거리가 다양한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완주를 새롭게 알아가고, 또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황산면, 전 직원 대상 친절 스마일 교육 실시

김제시 황산면(면장 강갑구)은 지난 7일 행정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인 신속하고 친절 민원·전화 응대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스마일 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신속·친절한 민원 응대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신규 직



원과 멘토 직원의 상황극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민원응대 요령과 고질 민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교환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 분위기 쇄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로 바쁘지만 조금 더 친절할 스마일로 민원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블랙야크 김제점, 노인종합복지관에 ‘효박스’ 전달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에서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블랙야크 김제점(대표 최봉규)과 ‘효(孝)박스’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블랙야크 강태선나눔재단에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버이날에 소외되기 쉬운 홀몸 노인에게 효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금년에 7번째 시즌 봉사활동으로 효박스에는 5만원 상당의 각종 식품과 목도시, 양말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45명에게 전달하였다.

최봉규 블랙야크 김제점대표는 “어



버이날을 맞아 효(孝)박스가 독거노인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다”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